에로스에 사로잡힌『삼국사기』고찰

국어국문학과
2013■■■■김남치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ⅰ. 희극적 에로스
    - 설씨녀와 가실
    - 도미처와 도미
  ⅱ. 비극적 에로스
    - 평강공주와 온달
    - 낙랑공주와 호동
3. 나오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로버트 단턴의『고양이 대학살』제 6장 '독자들은 루소에 반응한다: 낭만적 감수성 만들기'에서 루소는 그간의 세습적인 독서법을 버리고 자신의 독서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과 감정을 교류하고, 이를 통하여 독자들의 내적 삶에 도달하려고 했다. 즉, 소통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시대정신을 고취시켜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단턴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퍼진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그와는 떨어진 역사적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을 주요 사료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지평을 열어가려던 저자의 망탈리테 역사관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루소는 민중들과 감정의 교류를 위해 자신의 저작『신 엘로이즈』를 수단으로 삼는다.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슬픔'이란 감정을 도출해내고, 이는 모든 독자들에게 퍼져나가 교감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슬픔'이란 공감은 루소가 원하는 독서법대로 하였을 때 나올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였다. 하지만 필자는 결과가 아닌 그것이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시선을 돌려보았다.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이다. 이는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으며, 독자들 또한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이 에로스였다. 따라서 루소로 대변

되는 그만의 독서법에서 루소와 민중(독자)들의 관계는 단순히 슬픔을 공유하는 결과로가 아닌 에로스라는 하나의 큰 범주로부터 이미 깨우침의 정진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에로스'란 남녀 사이의 열정적인 사랑을 뜻한다.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면 성적으로 결합하여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낀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서가 고양되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한다.[1] 정의만 읽는다면 '에로스'란 의미가 다소 원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남녀 간의 진실하고도 끈적한 사랑에서 열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 이는 어떤 사랑에나 통용되는 감정이고 그 이치인 것이다. 물론 『신 엘로이즈』나 『삼국사기』에서 그 과정의 측면은 자세히 다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연시 된다고 믿는다면 통속소설이 아니고서야 굳이 꼭 표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에로스'는 그저 사랑의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일 뿐이고, 우리는 그 내면의 의미보단 겉으로 보이고 있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으로써 에로스를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신 엘로이즈』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에로스의 장면은 『삼국사기』에서도 그 기록을 통해 에로스가 포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에로스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는데 '설씨녀와 가실', '도미처와 도미'의 희극적 에로스, '평강공주와 온달', '낙랑공주와 호동'의 비극적 에로스이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위대한 역사 저서인 『삼국사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시절 명을 받아 여러 학자들과 함께 기전체식으로 편찬해낸 삼국시대 역사의 집대성이다. 구성으로는 전 50권으로 <본기> 28권, <연표> 3권, <잡지> 9권, <열전> 10권으로 되어있다. 김부식은 『진삼국사기표』를 통하여 그 편찬 동기와 목적 및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자층들조차도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면서, 첫째 중국 문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것을 자세히 써야 한다는 것, 둘째 현존의 『고기』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시 서술해야겠다는 것, 셋째 왕·신하·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 행동 규범을 드러냄으로써 후세에 교훈을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2] 이러한 의식을 살펴봤을 때,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총론에 따르면 허다한 역사 저술들 중에서 사대주의에 고취되어 제대로 된 역사적 가치가 퇴색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아류 격인 일연의 『삼국유사』만이 남아서 전해져 올뿐이라 비판을 받았지만,[3] 김부식은 진정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으며, 평안과 안전을 통해 훗날 세대에도 현 시대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랐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승된 역사서 이지만, 김부식은 이를 통해 여러 교훈을 전달하려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전 연령층이 아우를 수 있는,

---

1) 조광국, 한국 고전문학의 에로스, 아카넷, 2015, 6p

2) [네이버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064&cid=46620&categoryId=46620), 검색일자: 2017.12.09

3) 신채호, 『조선상고사』 총론, 1972(1931.06.10. ~ 10.14. 조선일보 {조선사} 연재)

특히 백성들의 삶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에로스'적인 내용은 절개있는 사랑으로 칭찬을 받기고, 나라를 곤경에 빠뜨린 위험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부식은 단순한 소재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며 지식인층만이 아닌 민중들에게도 다가가려 한 점에서 루소의 독서법과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본고는 누구에게나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인 '에로스'를 통해 대중들이 느낀 감정을 추측해보며 당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김부식이 이를 통해 공유하고자 했던 시대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해보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2. 본론

ⅰ. 희극적 에로스

『삼국사기』를 읽어 보면 다양한 범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열전>을 살펴보면 제 8권에서는 뛰어난 특기나 유교의 효행, 정절 윤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의 전기임을 찾을 수 있다. 이중 '설씨녀'와 '도미'는 정절을 지킨 여성으로써 서술되어 있는데 이들로부터 포착된 에로스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에로스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한 뿌리로부터 나온 결실이지만, 신분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은 특별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고, 열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한다.

두 명의 열녀는 정조를 지킴으로써 사랑을 쟁취하였다.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이며, 누구나 쉽게 견뎌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을 열녀로 칭한다. 즉, 열정적인 모습의 사랑에 세상도 감동하여 보통사람들과 달리 하여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애초부터 특별하거나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다. 에로스가 그들의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직접적인 남녀 둘 사이의 열정적 장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여 그와 유사한 에로스가 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부식은 열녀를 통해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었고, 이는 보통의 남녀 간의 사랑에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예시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삼국사기』는 왕명에 의해 편찬된 위대한 역사서로써 미천한 당대 또는 훗날 백성들이 접하기에는 그 용이성이 좋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물론 『삼국사기』 내용 전체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살기 바쁜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고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그중 백성들의 삶과 관련 있는 주제들은 이본이나 민담을 통한 구전으로 인해 활발히 전파되었음을 전제로 하려한다. 민중들은 이를 통해 에로스를 포착함으로 루소에 대한 독자들의 편지처럼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나타난 김부식의 시대정신을 공유하였던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삼국사기』기록에서 희극적 에로스가 포착된 텍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 설씨녀와 가실

열전(列傳) 제8

마침 나라에 변고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하도록 하지 못하여 6년을 머물고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 이미 지났구나.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설씨가 말하였다. "지난 번에 [가실이] 아버지를 편안히 하여 드렸고, 그러므로 굳게 가실과 약속하였습니다. 가실은 이를 믿었고, 그러므로 전쟁터에 나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괴롭고 고생이 심할 것이고, 하물며 적지에 가까이 있어 손에서 무기를 놓지 못하고, 호랑이 입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항상 물릴까 걱정할 것인데, 신의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감히 아버지의 명을 좇을 수 없으니 다시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중략))

이[때]에 가실이 교대하여 왔다. 몸과 뼈가 야위어서 파리하였고 옷이 남루하여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다. 가실이 곧바로 앞에 와서 깨진 거울을 던지니 설씨가 그것을 주워 들고 큰 소리로 울었다. ...(중략)...드디어 다른 날을 약속하여 서로 만나 그와 더불어 해로하였다.

- 도미처와 도미

열전(列傳) 제8

왕이 그녀를 시험해 보려고 일을 핑계로 도미를 머물게 하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왕의 옷을 입고, 마부를 데리고 밤에 그 집에 가도록 시키고, 사람을 시켜 먼저 왕께서 오실 것임을 알리도록 하였다. [왕을 가장한 신하가]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네가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도미와 내기하여 그를 이겼으니 내일 너를 들여 궁인(宮人)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 다음부터 네 몸은 내 것이다."

드디어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자 부인이 말하였다. "국왕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 제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에 들어가소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러나서는 한 계집종을 치장하여 잠자리에 들였다. ...(중략)...

부인이 곧 도망쳐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홀연히 외로운 배가 물결을 따라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타고서 천성도(泉城島)註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두 열녀의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은 어떠한 감정을 마음속에 품었을까. '설씨녀', '도미' 모두 자신이 사랑하던 남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에로스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다. 이는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것이었기에 보통 사람들과 같은 경우라면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의 아버지 대신 전장에 참여하여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가실', 개루왕이 직접 '도미'를 불러 그의 처의 절개를 시험해 보리라는 상황은 그녀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자 그것을 접한 민중들이 에로스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설씨녀'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가실'을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라는 그의 아버지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듣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전장에 참여한 그와의 혼인을 약속하였고, 또한 약속을 넘어 그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중히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며 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임을 공고히 한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에로스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숨을 바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를 모두 사로잡으려 한 '가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굳은 의지의 '설씨녀' 의 기록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그들 사이의 열정적인 마음이 가득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다시 재회할 수 있었고,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

'도미 처'는 그 미모가 출중하고, 절개 있는 행실을 보여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여인이었다. 이를 듣고 개루왕은 그녀를 시험하고 싶었다. 지조 있고 행실이 깨끗해 보이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유혹하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미 처'는 하늘같은 왕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써 교묘히 피해나간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왕은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고는 강가에 내다 흘려보낸다. 그러고는 또 다시 '도미 처'를 겁탈하려하지만 이번 또한 지혜로운 처사로 절개를 지켜낸다. 그들이 서로 다시 만났을 때의 몰골은 예전에 비하면 처참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복한 재회, 결말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만났다는 것이다. 둘 중 누군가 하나가 상대방의 믿음의 사랑을 저버렸거나, 죽음에 다다랐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만남이기에 그 의미는 소중하다. 따라서 그들의 재회만으로도 그 과정에는 열정이 담겨져 있고 희극적 에로스임을 말할 수 있다.

민중들은 그녀들의 절개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마땅한 통신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어찌나 뼈저리게 다가왔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사랑을 지켜냈고,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가져다 준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애가 타는데 자그마치 6년의 기다림을 통해 보여준 '설씨녀'와 전장의 고난을 이겨내고 돌아온 '가실'의 열정적 에로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왕이란 존재를 속여 가면서까지 하나뿐인 사랑을 지켜냈던

'도미 처'와 그런 그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던 '도미'의 열정적 에로스는 민중들의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사랑을 본받고자 함을 이끌어냈고, 그 감정은 환희, 놀라움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변방국의 위험으로부터 사대주의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조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던 모습도 절개로 표현될 수 있음으로서 비단 이성뿐만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켜야하는 나라에 대한 에로스를 나타낸 김부식의 시대정신을 공유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중 개개인의 에로스가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이 나라를 형성함으로 곧 나라가 에로스의 집합체가 되니 나라를 향한 굳은 절개로 안녕을 도모하는 노력이 일상생활의 에로스를 이어나가는 것임을 여실히 깨우치게 한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ii. 비극적 에로스

에로스라고 해서 행복한 결말로만 끝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열전>의 제 5권에서는 어진 재상이나 충성스러운 신하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열전>에만 에로스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왕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변국들과의 정복전쟁 가운데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중 '평강공주와 온달', '낙랑공주와 호동'의 내용에서 포착된 에로스를 주목해보려 한다. 누구나 행복한 마음에서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죽음에 이르거나,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비극적인 결말에도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삼국사기』 기록에서 비극적 에로스가 포착된 텍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u>- 평강공주와 온달</u>

열전(列傳) 제5
양강왕(陽岡王: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溫達)이 왕께 아뢰었다.
"생각컨대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지역을 빼앗아 군현(郡縣)으로 삼으니, 백성은 몹시 가슴아파하며, 지금껏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 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왕이 허락하였다. ...(중략)...
드디어 가서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신라군과 싸웠는데, [온달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

<u>- 낙랑공주와 호동</u>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제2
여름 4월에 왕자 호동(好童)이 옥저(沃沮)로 놀러 갔을 때 낙랑왕(樂浪王) 최리(崔理)

가 출행하였다가 그를 보고서 묻기를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사람이 아니구나. 어찌 북국 신왕(神王)의 아들이 아니겠는가?"하고는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후에 호동이 나라로 돌아와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알려서 말하기를 "만일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뿔피리를 찢고 부수면 내가 예로써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낙랑에는 북과 뿔피리가 있어서 적의 병력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었다. 그런 까닭에 이를 부수게 한 것이다. 이에 최씨 딸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몰래 창고에 들어가 북의 면(面)과 뿔피리의 주둥이를 쪼개고 호동에게 알렸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하였다. 최리는 북과 뿔피리가 울리지 않아 대비하지 못하였다. 우리 병력이 갑자기 성 밑에 도달한 연후에야 북과 뿔피리가 모두 부서진 것을 알았다. 마침내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두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은 사랑이란 것이 꼭 행복한 단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걸 느꼈을 것이다. 물론 두 이야기의 비극성은 엄연히 따지면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온달'의 죽음에선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헤어짐에서 비롯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타내는 반면 자명고를 찢어버린 '낙랑'의 행동에선 사랑에 눈이 멀어 나라마저 팔아버린 어리석은 여성상을 그려내어 열정적인 에로스라 하더라도 그 도를 넘어서면 과유불급이 되어버림을 전달하고 있다.

'평강공주와 온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으로서 용모가 못생기고 우스꽝스럽지만, 심성은 티 없이 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몰골이 초췌해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온달'이라 불렸는데 평강왕은 자신의 딸인 평강이 울면 겁을 주기 위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장난 섞인 으름장을 놓곤 했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평강공주는 혼기가 참에 실제로 온달과 혼인을 하게 된다. 신분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온달은 후주 무제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때 선봉장으로 공을 세우며 평강왕으로부터 사위로 인정받으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만 같았다. 허나 신라군과의 아단성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며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는다. 남녀 둘 사이의 잘못은 없었다. 이는 단지 열정적인 에로스로도 막을 수 없었던 세상이 정한 운명의 이치였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접한 민중들은 그 둘의 순수한 사랑에 절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백년해로 하지 못한 둘의 운명에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낙랑공주와 호동'에선 똑같은 비극적 에로스이지만 그 감정이 조금 달라진다. 또한 '바보온달과 평강'에선 비극성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번엔 여성인 '낙랑공주'에게 조금 더 초점이 쏠린 듯한 느낌을 준다. 낙랑공주는 호동을 너무나도 사랑한 탓에 나라의 비호를 상징하는 자명고와 뿔피리를 훼손하는데 이르고, 결국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낙랑공주는 이에 격노한 아버지에 손에 죽임을 당하고, 호동은 고구려의 부국강병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잃는 결과를 얻게 되었

다. 여기선 남녀 간의 불균형한 에로스가 실현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 현대에서도 한쪽으로 사랑이 쏠리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당시에도 이는 비슷한 맥락이다. 분명 둘은 첫눈에 반한 에로스였지만, 우호적이지 못한 나라의 이해관계가 둘의 감정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비극을 초래하였다. '낙랑공주'는 끝까지 사랑을, '호동'은 그보단 조국을 생각한 것이다. '낙랑공주'의 행동이 에로스에 의한 맹목적 선택이었다고 포장할 순 있지만 지나친 에로스는 파국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민중들은 사랑의 초인적인 힘의 가치에 놀라고, 낙랑의 어리석음을 마음 속 깊이 새겼을 것이다.

민중들은 또 다른 결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할지 고민에 빠진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 에로스가 가져다주는 교훈 또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말했듯이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에로스의 장면을 집어넣어 단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모습 설명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자신과 조국과의 에로스를 고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온달'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으로만 끝날 수 없다. 그는 남녀 간의 에로스는 죽음으로 단절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고구려를 지켜냄으로써 더 큰 의미에서의 열정적인 에로스를 실현한 것이다. 반면 '낙랑'의 어리석은 행동은 개인의 잘못된 에로스가 작은 불씨가 되어 조국의 멸망이라는 큰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에로스 자체는 매우 고귀하여 작은 실천으로 큰 업을 이룰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듯 김부식은 에로스를 『삼국사기』의 서사 속 작은 일례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는 그의 시대정신의 뿌리가 깃들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백성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에로스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보편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의 제 6장 루소의 독서법에서 『신 엘로이즈』를 통한 감정의 공유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왔음을 포착하여 『삼국사기』에서도 그러한 에로스적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았다. 크게 희극적 에로스와 비극적 에로스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김부식이 당대 『삼국사기』를 편찬하며 이러한 사랑 이야기에 담아두었을 메시지를 추측해보았다.

두 가지 성격의 에로스를 보며 당시 민중들은 행복한 사랑만을 염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희극적 에로스만 임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에로스라는 것이 그렇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제어가 필요해 보일 때도 있지만, 막상 자신이 처한 에로스는 그 강렬함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채 그 순간이 그저 행복한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지금 하고 있는 달콤한 사랑 자체가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김부식

은 에로스를 존중하고 받아들였던 인물이다. 그러했기에 『삼국사기』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그 모습들이 포착될 수 있었다. 다만 그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 했다. 좋은 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부식은 희극적 에로스와 비극적 에로스를 모두 보여주었다. 양쪽 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애(愛)를 실천하여 자신도, 나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지켜낼 것이라 본 것이다. 이렇듯 『삼국사기』 속 에로스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감정 표현, 개인적인 사랑의 교훈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부국강병의 나라를 염원하던 김부식의 시대정신의 귀결점이자,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어 그 정신이 널리 퍼진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루소는『신 엘로이즈』라는 저서에 사랑이야기로 감정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깨워 훗날 대혁명이라는 더 큰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김부식 또한 『삼국사기』 속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야기로 민중들의 감정을 일깨운 후, 소통을 통해 남녀 간의 에로스, 더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시켜 훗날 백성들에 의해 전개될 수많은 혁명에 있어 능동적인 씨앗을 심어주었다는데 의의를 가져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조광국, 『한국 고전문학의 에로스』, 아카넷, 2015, 6p

삼국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사> 수업- 삼국사기 강의안 中

- 신채호(1972), 『조선상고사』 총론, (1931.06.10. ~ 10.14. 조선일보 {조선사} 연재)